

18. 유딧기

유딧기는 여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유딧’은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유다’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유다인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서양의 예술가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킨 종교 소설입니다.

아시리아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는 메디아 임금 아르팍삿과 싸워 이긴 후 자기 편으로 가담하지 않은 지방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파견하였습니다. 홀로페르네스의 군대가 유다의 배틀리아를 삼십사일 동안 포위하고 위협하였습니다. 수로가 막혀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잃고 하느님께 부르짖다가, 우찌야 임금과 성읍의 모든 수장과 원로들에게 아시리아와 화친하여 그들의 종이 되자고 외칩니다. 이에 우찌야 임금은 닷새 동안 기다려도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오지 않으면 항복하자고 백성을 설득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과부 유딧은 그 결정은 주님을 시험하는 불손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그 날짜 안에 주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라 말한 후,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 후 유딧은 믿을 만한 시녀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 미모와 재치로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고 그와 술자리를 같이하다가 술에 굶아떨어진 그의 목을 베어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유딧의 계획에 따라 이튿날 장수를 잃은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칩니다. 유딧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석 달 동안 큰 축제를 벌인 다음 자기 소유지로 돌아와 온 나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유딧을 탐내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죽는 날까지 홀로 지내며 백다섯 살까지 장수를 누리다 남편 므나쎄의 동굴 묘지에 함께 묻힙니다.

‘유다인 여자’라는 이름 뜻 그대로 유딧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기 때마다 자신들의 믿음과 지혜와 결단으로 용감하게 겨레와 나라를 구한 모든 유다 여성들을 대표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유딧기의 가르침은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시련을 보내실 수는 있어도 인간 편에서 감히 그분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며 여성도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또 남녀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는 가부장 사회의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으면서도 종교 전통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율법과 전통에 대해 유연하고 균형 잡힌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시련은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성장시키고 당신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함임을 가르칩니다.